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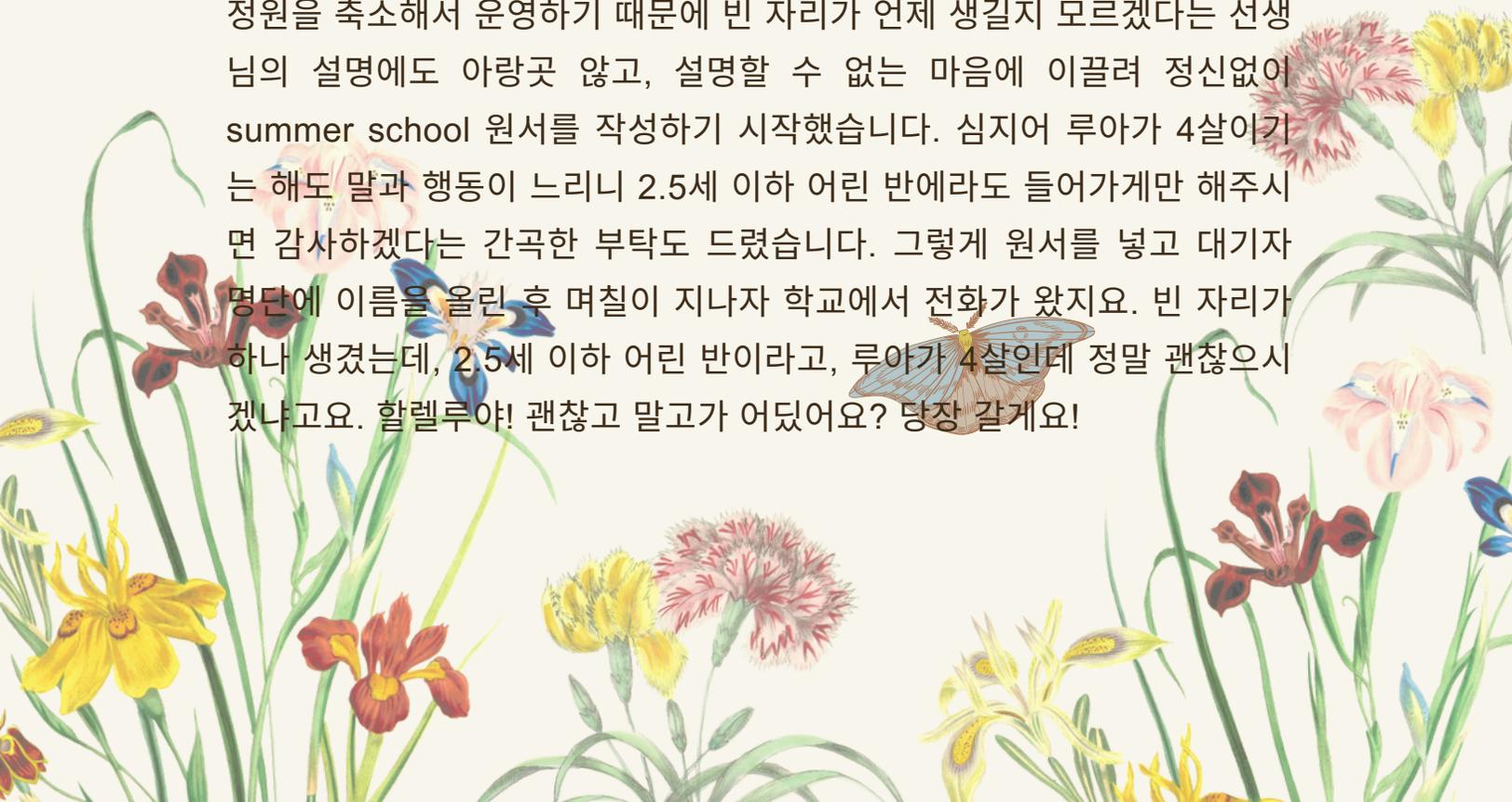
Dear CMS 선생님들께,



타닥 타다다닥 타닥.... 휴우.....

컴퓨터 자판기를 두드리는 양 손의 분주한 움직임에 맞춰 덩달아 요동치는 마음을 겨우 겨우 다독여가며 루아의 CMS summer school 원서를 보내고,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작년 5월 이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워킹맘인 저는 딸이 다니던 mom's day out preschool이 여름방학을 시작하면서 마음이 조금해졌습니다. 기나긴 여름 동안 루아가 다닐 수 있는 다른 곳을 급히 찾아야 했지요. 아무리 인터넷을 통해 이곳 저곳을 알아보고 연락을 해보아도 루아가 여름을 보낼 만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원서가 마감이 되었거나, 기나긴 대기자 명단의 맨 끝에 이름을 올리고 하릴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central montesorri school의 summer school 등록 광고를 보고 바로 학교로 전화해서 혹시 자리가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이곳 역시도 정원이 차서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기다려야 한다는 대답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이상하게도 (나중이야 그 이유를 알았지만) 그냥 이곳에 루아의 이름을 올리고 기다려보자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원을 축소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빈 자리가 언제 생길지 모르겠다는 선생님의 설명에도 아랑곳 않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에 이끌려 정신없이 summer school 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루아가 4살이기는 해도 말과 행동이 느리니 2.5세 이하 어린 반에라도 들어가게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간곡한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원서를 넣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 며칠이 지나자 학교에서 전화가 왔지요. 빈 자리가 하나 생겼는데, 2.5세 이하 어린 반이라고, 루아가 4살인데 정말 괜찮으시겠냐고요. 할렐루야! 괜찮고 말고가 어딴어요? 당장 갈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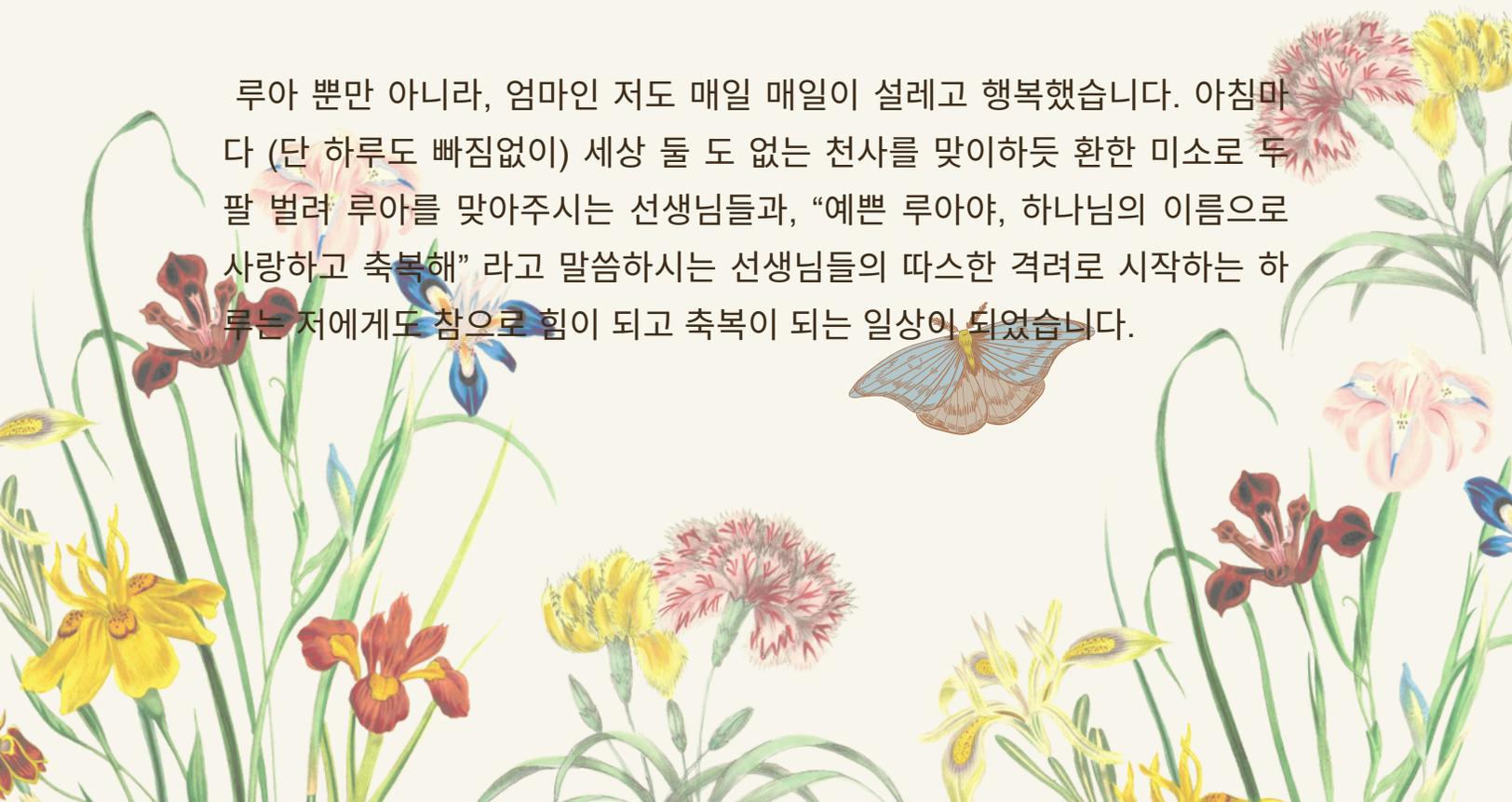




이렇게 해서 4살인 루아는 어린 동생들과 함께 CMS에서의 첫 여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발달도 느리고 말도 많이 느려서 언어치료를 받다가 코로나로 인해 그나마도 중단하게 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던 루아에게는 어린 동생들과 함께하게 된 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유난히 아기를 좋아하는 루아는 학교에 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지요. 막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학교에 다시 돌아가자고 울며 보챌 정도였으니까요. 어린 동생들과 함께 배우고 지내면서 루아 수준에 맞는 말도 더 많이 배우고,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언니 노릇도 하면서 동생들을 챙기게 되니 너무나 기뻐했던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매일 루아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알림장을 보며 CMS 선생님들이 얼마나 루아를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주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루아가 어떤 사랑과 보살핌 속에 지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 것 같았지요.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 이미 루아도 그 사랑과 따스한 보살핌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걸, 행복한 미소 한가득 안고 학교로 향하는 루아의 얼굴이 말해주었습니다.

루아 뿐만 아니라, 엄마인 저도 매일 매일이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세상 둘도 없는 천사를 맞이하듯 환한 미소로 두 팔 벌려 루아를 맞아주시는 선생님들과, “예쁜 루아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해”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의 따스한 격려로 시작하는 하루는 저에게도 참으로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루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열어 그날 그날의 알림장 메시지를 읽으며 웃고 울던 시간들도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 되었구요. 작년 여름 내내 받았던 알림장들은 지금까지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루아의 CMS 생활은 루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너무나 좋아라하는 루아를 보며, 몬테소리 교육에 신앙 교육을 접합한 교육과정을 보면서, 여름 뿐만 아니라 새 학기에도 계속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지체 없이 예전에 다니던 preschool을 취소하고 바로 CMS가을 학기에 등록했습니다. 다행히 가을학기 부터는 루아가 3-5세 반에 들어가게 되었고, CMS 선생님들은 여전히 말이 느리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루아를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로 품어주셨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응원해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루아는 하루가 다르게 많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말도 많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루아의 성장에 엄마인 저보다도 더 기뻐하며 눈물흘리시는 선생님들의 진실한 사랑에, 제가 얼마나 많은 위로와 소망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말도 느리고 행동도 미숙한 루아 때문에 힘이 들 법도 한데, 선생님들은 단 한 번도 힘들거나 싫은 내색 없이 오히려 루아를 끌어 안고 기도하시고, 또 엄마인 저까지도 위로하시고 격려해주셨습니다. 학부모에게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만큼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일이 또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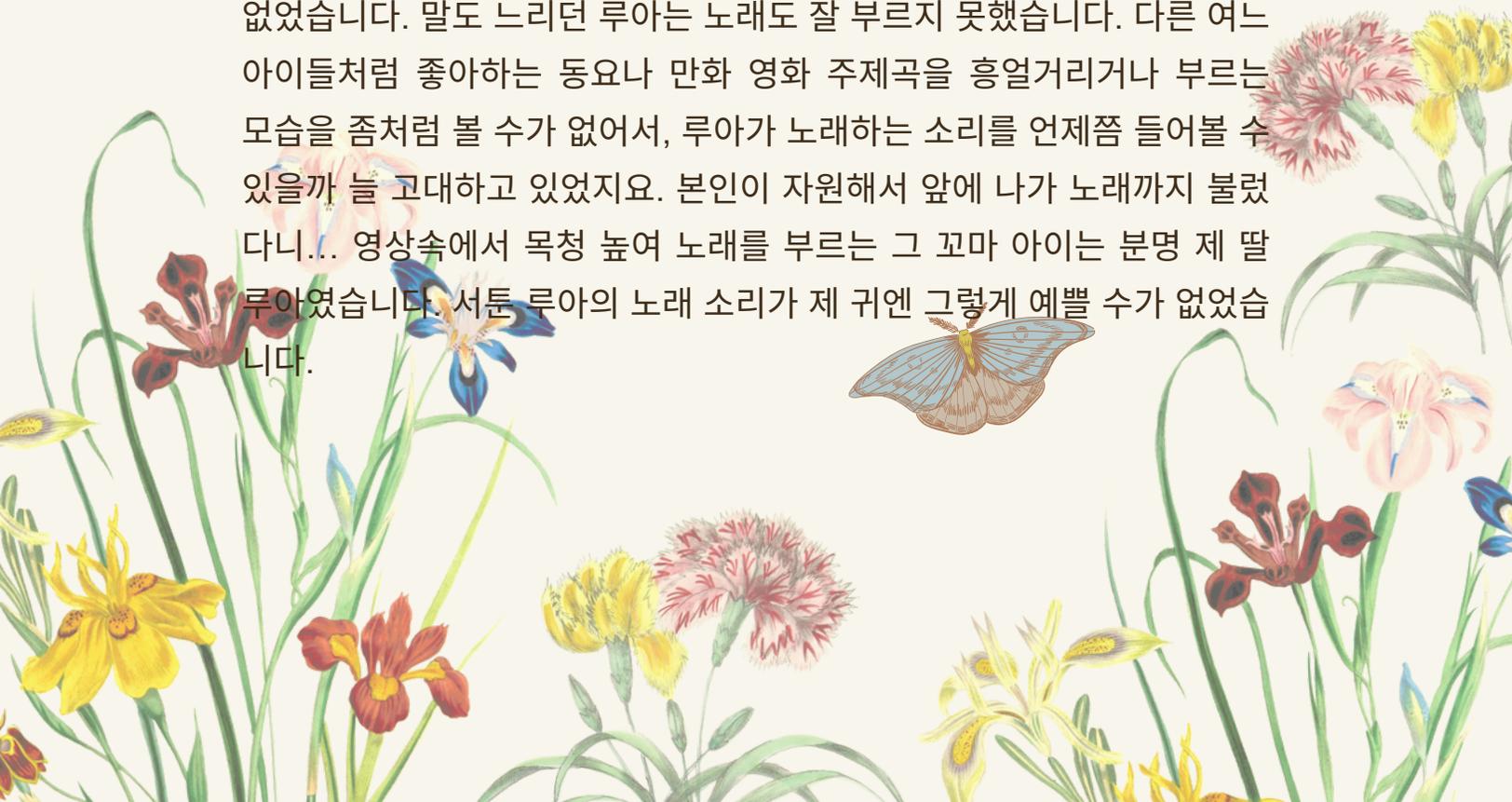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루아가 자꾸 친구들에게 손을 대거나 때려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요. 선생님이 저에게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루아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왜 그것이 잘못 되었는지를 선생님이 찬찬히 설명해주신 후에 꼬옥 루아를 안고 기도하시면 루아가 다 알아듣고 순종한다구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던 중, 루아를 꼬옥 안고 기도하신다는 그 말에 저의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엄마인 나는 발달이 더딘 아이를 보며 늘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또 때로는 느린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혼내고 보채기 바빴는데, 그런 내 아이를 품에 꼬옥 안고 기도하신다니... 어린 아이를 품에 꼬옥 안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루아를 품에 안고 기도하시는 선생님에게서 예수님의 사랑과 오래참으심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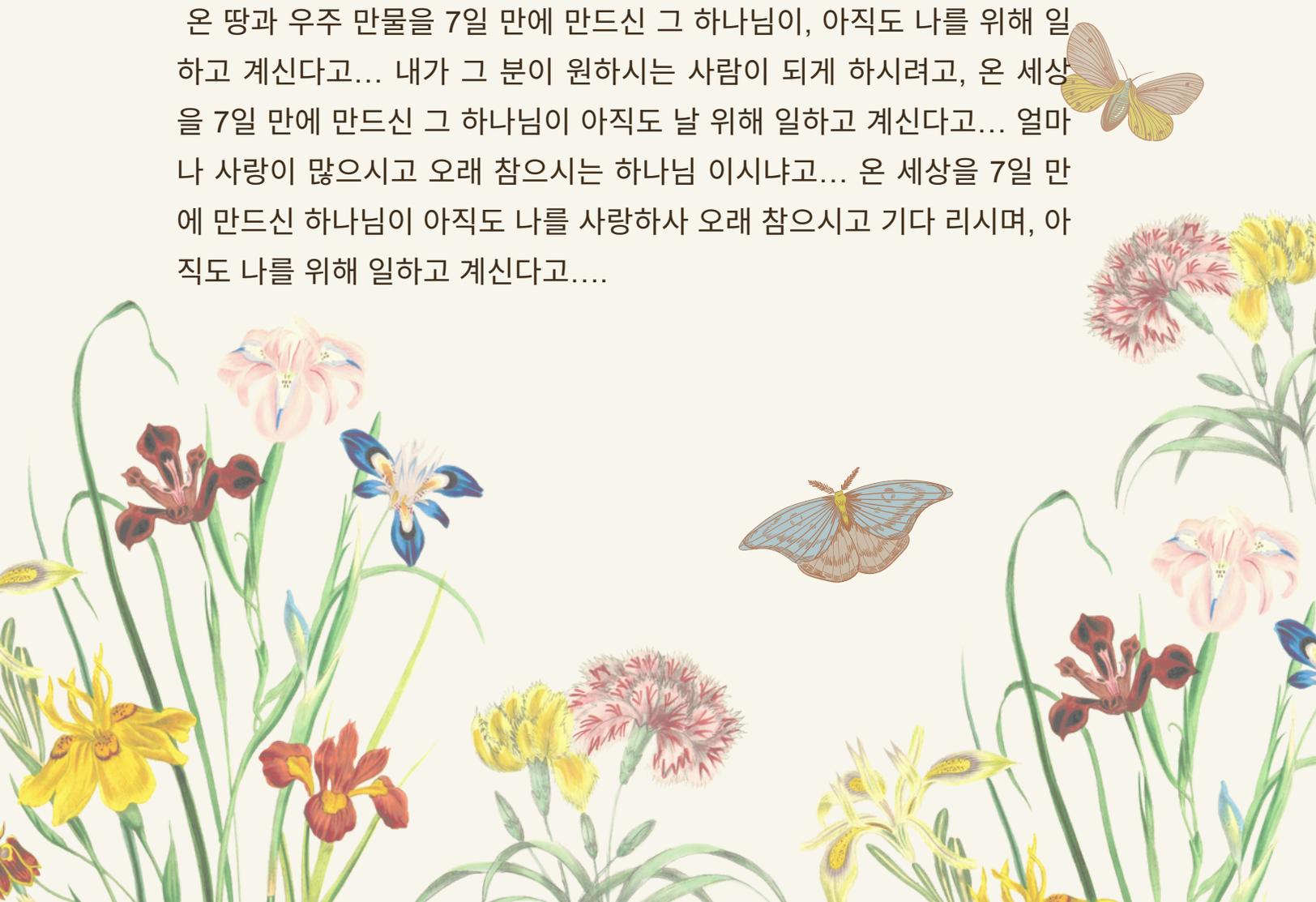
느리고 더딘 루아로 인해 지치고 소망을 잃어가던 가을의 어느 날, 선생님께서 문자가 왔습니다. 루아가 예배 시간에 많은 친구들 앞에서 무대 위에 올라가 찬양을 불렀다는 메세지와 함께 영상이 하나 도착해 있었습니다. 루아가 손을 들고 자원해서 앞에 나가 불렀다구요... 놀랐습니다. 그런데, 루아가 불렀다는 그 찬양을 듣고는 더 크게 놀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도 느리던 루아는 노래도 잘 부르지 못했습니다. 다른 여느 아이들처럼 좋아하는 동요나 만화 영화 주제곡을 흥얼거리거나 부르는 모습을 좀처럼 볼 수가 없어서, 루아가 노래하는 소리를 언제쯤 들어볼 수 있을까 늘 고대하고 있었지요. 본인이 자원해서 앞에 나가 노래까지 불렀다니... 영상속에서 목청 높여 노래를 부르는 그 꼬마 아이는 분명 제 딸 루아였습니다. 서툰 루아의 노래 소리가 제 귀엔 그렇게 예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루아가 부른 그 찬양의 가사가 그냥 가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 말이 느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루아의 찬양을 들으면서 가사가 잘 들리지 않아 처음엔 그 찬양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귀에 들리는 가사만 가지고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찬양 전 곡의 가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읽어내려가던 저는 그만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발달이 느린 아이 때문에 지치고 소망을 잃어가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그 찬양의 가사에 담겨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찬양을 다름 아닌 우리 루아가, 발달이 느린 그 아이가 그 입술로 제게 들려주고 있지 뭐예요...

“He’s still working on me / To make me what I ought to be / It took him just a week to make the moon and stars / The sun and the earth and Jupiter and Mars / How loving and patient He must be / Cause He’s still working on me”

온 땅과 우주 만물을 7일 만에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내가 그 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온 세상을 7일 만에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직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시냐고... 온 세상을 7일 만에 만드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아직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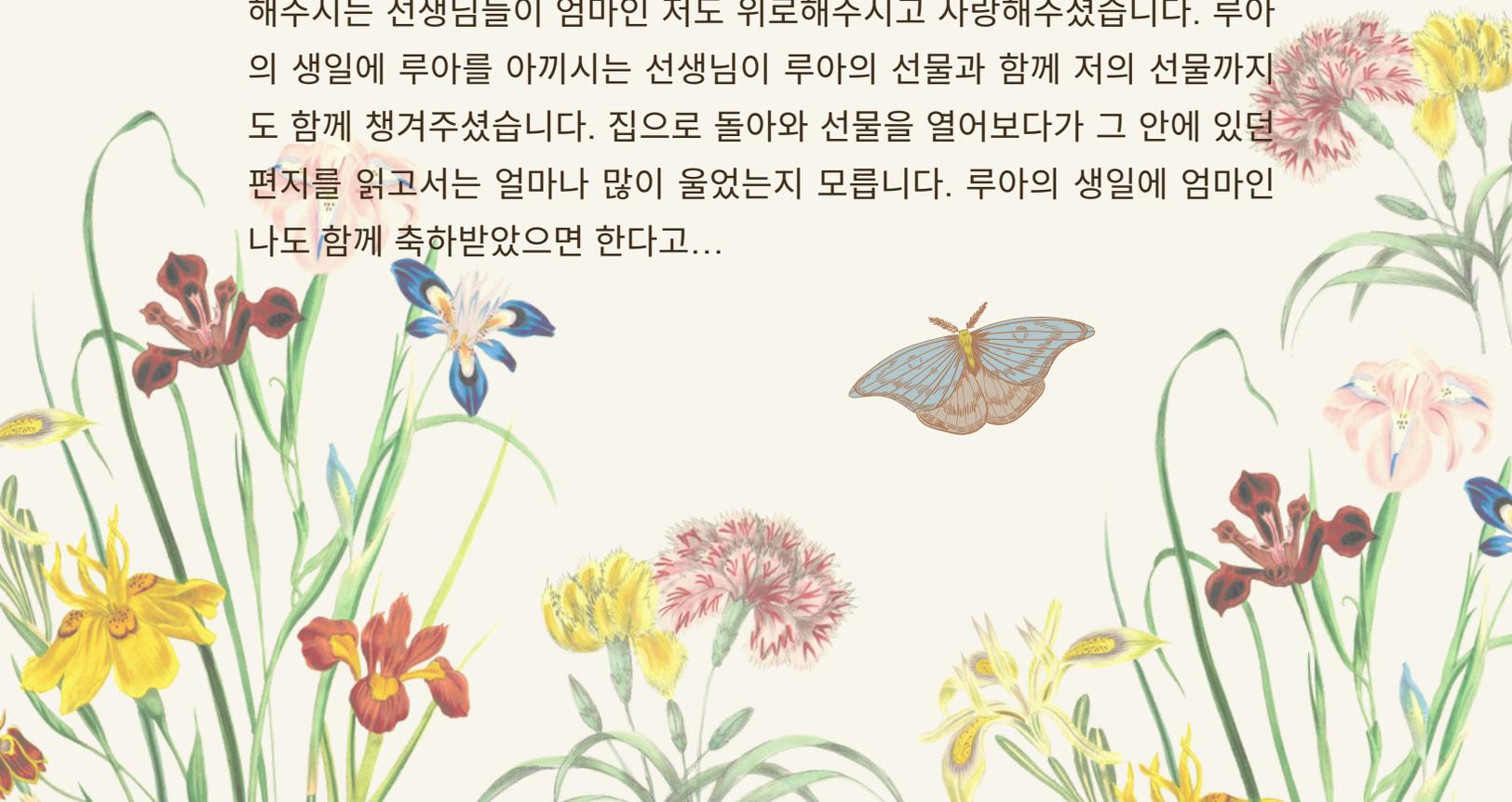




아이의 입술을 빌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7일만에 창조한 나도 너의 딸 루아를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너는 그리 조금해하고 불안해하느냐고... 온 세상을 7일 만에 창조한 내가, 나의 시간에 나의 때에 루아를 온전케 하리라는 믿음이 왜 네게는 없냐고... 아직도 루아의 삶 속에 일하고 있는 내가 보이지 않느냐고...

아이의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온 세상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7일만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루아도 만드셨고, 아직도 우리 루아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소망을 얻고 일어설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처럼, 지금도 우리 루아를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며 보살피시는 선생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엄마인 나의 차례였습니다.

루아가CMS학교를 다니며 많은 성장을 이룬 것처럼, 저 또한 많이 위로 받고 성장했음을 고백합니다. 루아를 믿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엄마인 저도 위로해주시고 사랑해주셨습니다. 루아의 생일에 루아를 아끼시는 선생님이 루아의 선물과 함께 저의 선물까지도 함께 챙겨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선물을 열어보다가 그 안에 있던 편지를 읽고서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루아의 생일에 엄마인 나도 함께 축하받았으면 한다고...





루아를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루아가 선생님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는 사랑이 많은 아이인지 모른다고... 엄마인 나를 응원한다고... 이렇게 나를 이해하고 알아주고 따스하게 어루만지며 위로하시는 선생님의 사랑 속에서, 예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곧 루아는 CMS를 졸업하고 kindergarden에 가게 되겠지요. 생각만 해도 많이 아쉽고 슬퍼집니다. 어디에 가서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학교 생활 할 수 있을까요. 이제와 돌이켜 보니, 이곳으로 루아를 인도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이곳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고 또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평안을 받았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들을 통해 나 또한 내 자녀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CMS는 그냥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동산입니다. 이런 귀한 곳에 우리 루아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이곳으로 이끄시고,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열심으로 가르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신영 (강루아 엄마 드림)

